

총평

먼저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문제가 공개되는 첫 시험이었습니다. 처음이라 예상대로 무척이나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대체로 기본적인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어 1년 정도 꾸준히 공부한 학생은 100점이나 95점 정도 맞았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80점도 잘한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0점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더욱 가열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처음으로 공개된 후에는 시험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점수가 잘 나온 학생은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하면 되고, 점수가 부족한 학생은 조금도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곧 봄이 오겠지요. 봄이 오면 시험입니다. 18년 겨울, 누구보다 뜨겁게 공부해봅시다. 파이팅!

1. ②

본문에서 영미는 ‘침대’를 ‘사진’이라고 바꿔 부르고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약속인 사회성을 어긴 것으로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① 언어의 창조성: 인간은 한정된 음운이나 어휘를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 처음 들어보는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특성을 말한다.

③ 언어의 역사성: 언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운이나 어휘 등의 측면에서 생성, 성장, 소멸하며 변화하는 특성을 말한다.

④ 언어의 자의성: 언어 형식과 의미의 관계.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가지는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母(모)"를 뜻하는 우리말은 '어머니'이고, 영어로는 'mother', 독일어에서는 'mutter'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언어의 내면적 의미와 외연적 형식의 관계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자의성이다.

2. ④

(가) 시조의 ‘이 몸’은 화자인 성삼문을 말하는 것으로 절개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지, 절개를 다짐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

(나) 시조의 ‘님’은 화자가 절개를 다짐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박팽년이라는 작가를 생각해 볼 때, 단종으로 볼 수 있다.

① (가)의 ‘백설’은 화자의 태도인 ‘독야청청’과 대비되는 소재로 혼란스러운 현실을 의미한다.

(나)의 ‘눈비’도 화자의 태도인 ‘일편단심’과 대비되는 소재로 혼란스러운 현실을 의미한다.

② ‘독야청청’과 ‘일편단심’은 화자의 절개를 드러내는 것이다.

③ 두 작품의 ‘낙장송’과 ‘야광명월’은 화자의 절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3. ②

‘거미’만 우리말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이다.

- ① 국경(國境)
- ③ 도시(都市)
- ④ 순식간(瞬息間)

4. ④

이 작품은 산이 나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자연 친화를 통한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 작품이다.

산이 나에게 바른 삶에 대해 말해주는 방식으로 화자와 ‘산’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은 틀리다.

①, ②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며 살아라.”, “짐을 짓고 자식 낳고 호박 심고 들짚레, 쭉대밭처럼 살아라.”, “그믐달처럼 살아라.”를 통해 반복을 통해 주제인 탈속적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작품에서 산이 화자에게 말하는 것을 결국 화자의 소망을 뜻하는 것이다.

5. ①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으로 나눌 수 있다.’를 통해 분류임을 알 수 있다.

② 서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전개 방식을 말한다.

③ 대조: 두 대상의 차이점을 들어 전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인과: 원인과 결과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6. ③

외래어 표기법은 된소리를 적지 않으므로 재즈가 맞다.

① 외래어 표기법은 된소리를 적지 않으므로 ‘카페’로 적는다.

예) 꼬냑→코냑, 까운→가운, 빼지→배지

② ‘ㅈ’, ‘ㅊ’에는 이중 모음을 적지 않으므로 ‘비전’으로 적는다.

예) 스케줄→스케줄, 레이저→레이저

④ 그동안 써 왔던 표기는 관용으로 존중해 주기 때문에 ‘슈퍼마켓’으로 적는다.

예) 바나나, 오렌지, 슈퍼맨

7. ②

주체(할아버지) 높임과 상대(너) 높임이 모두 바른 문장이다.

① 주체 간접 높임으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로 적는다.

③ 주체 간접 높임으로 “지금부터 사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로 적는다.

④ 주체 높임으로 “어머니께서 제게 시간을 물어 보셨어요.”로 적는다.

8. ①

‘새’는 신발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사이다.

② ‘과연’은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이다.

③ ‘자주’는 ‘다닌다’를 꾸며주는 성분 부사이다.

④ ‘정말’은 ‘열심히’를 꾸며주는 성분 부사이다.

9. ①

신재효 선생이 정리한 판소리 여섯 마당은 ‘적벽가’,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홍부가’, ‘변강쇠(가루지기) 타령’ 등이다.

‘만분가’는 조위의 작품으로 유배가사에 해당한다.

10. ④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11. ③

정시상의 ‘송인’은 가로로 한자가 7자(7언)이고, 세로로 네

줄(절구)로 7언 절구의 작품이다. 읊시는 세로로 여덟 줄로 된 작품을 말한다.

12. ①

수진이는 계획을 세우고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공부를 하였다. 이와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이다.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도 끊임없는 노력(努力)과 끈기 있는 인내(忍耐)로 성공(成功)하고야 만다는 뜻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③ 어부지리(漁父之利):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영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

④ 상진벽해(桑田碧海):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③

음운의 축약은 음운과 음운이 만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모음 축약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 이중모음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가+아서’가 ‘가서’가 된 것은 동음 탈락으로 ‘타+아서’가 ‘타서’가 되는 것과 같다.

14. ④

‘하늘+ 이+ 맑+ 고+ 푸르+ 다’

자립형태소	하늘
의존형태소	-이, 맑-, -고, 푸르-, -다.
실질형태소	하늘, 맑-, 푸르-.
형식형태소	-이, -고, -다.

15. ②

ㄱ. ‘당신(대명사)이(조사)V나(대명사)를(조사)V문득(부사)V알아볼(동사)V때(명사)까지(조사)’로 단어와 단어를 모두 띄어 썼다.

ㄴ. ‘집(명사)V한(수관형사)V채(단위성 의존명사)’로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띄어 썼다.

ㄷ. ‘한국인(명사)만큼(조사)’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ㄹ. ‘꽃(명사)입니다(서술격조사)’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6. ④

이 글은 ‘공정 무역’이 영국의 구호단체로부터 시작되었고, 1989년 전 세계 270개 공정 무역 단체가 가입한 국제 공정 무역 협회의 출범이후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글이다.

17. ④

아홉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을 보면 ‘착한 커피’나 ‘아름다운 커피’ 같은 것도 이런 운동에서 나왔다고 알 수 있다.

① 다섯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을 보면, 1950년대 말 영국의 구호단체 ‘옥스팜’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여덟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을 보면 유럽에서는 공정 무역이 50년여 년의 역사를 지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18. ④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행동에서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기분(氣分)’으로 적는다.

‘감회(感懷)’는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

19. ④

이 작품의 김영랑의 작품으로 오월에 느끼는 생명의 약동감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산봉우리를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 ‘-고’, ‘-다’, ‘-랑’, ‘-뿐’ 등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근경에서 원경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③ 1행의 ‘붉어지고’와 2행의 ‘푸르러졌다’를 통해 색채 대비가 드러났다.

20. ④

역설법이란 모순 형용어로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말한다. ‘강철로 된 무지개’는 말이 안 되므로 역설법에 해당한다.